

제41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 1. 간사 선임의 건 | 8 |
| o 간사(강선우) 인사 | 8 |
|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 8 |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10시가 됐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께서 위원으로 오셨으니까 저는 좀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 가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상임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가슴에 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접수 및 처리 기준으로는 17개 상임위 중에 2위로 매우 성실하게 일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테니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현장과 가까이 있는 상임위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편찮으시다면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2대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18일에는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찾고 또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상임위 위원들의 좌석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점 국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당장의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문제, 저출생 문제 등 복지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회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국회법을 존중해서 국회법 취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있는 회의니까요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강선우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박주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느끼는 위원회가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 잘 챙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요. 저의 전공을 살려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제도나 돌봄시스템의 개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 보건의료·연금개혁 등의 문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후가 걱정스럽지 않은 미래를 꿈꾸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의료정책을 전공하고 의료체계 개편, 돌봄체계 개혁과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2대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돌봄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 타협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보건복지위원회에 국힘 위원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 가는 의정 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위원회다 보니까 여야 갈등이 있을 때도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힘 위원님들이 여기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조속히 좀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의정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상임위원회를,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빨리 열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출생 문제와 그리고 축소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보건복지위를 지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산적한 대한민국의 이런 과제들을 함께 입법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말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로 지금 집단 휴진 이런 문제들로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물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들어오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여당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안 들어오셔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로 정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기본이 담긴 이런 문제들은 함께 여야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도 오늘 우리 단독으로 열었지만 여당 위원님들이 들어오기를 좀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말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 당사자이고 또 여성으로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시민 후보로 국회의원이 된 서미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증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희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더 이상,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갈등 그리고 여전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편견이나 관점들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장애인이 시민으로 존중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사태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환자분들이시고 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우선적으로 이런 현안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 민심, 정말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의료 문제는 치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직면하고 있는 중증 환자분들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고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좀 국민들의 마음을 해 아리셔서 할 일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보다도 국민들의 가장 심각하고 정말 현실적인 민생을 국회에서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시간 끌기 이런 모습을 접고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회의에 즉각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경기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민생이 힘들고 민생이 고달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22대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재앙 사태인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는 문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우리 사회가 돌봄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소병훈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오게 된 것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노인에 대한 나라의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일에 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건복지위에 왔습니다. 앞으로 그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 볼 생각이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국힘당 의원님들 국회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우리 국회를 ‘나 홀로 출발’이니 ‘단독 출발’이니 그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언론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고쳐 주셔야 국힘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그런 명분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면 계속 안 들어오게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 홀로’니 ‘단독’이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법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열린 국회에 오지 않은 겁니다. 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하셔 가지고 국힘 여당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정당이 7개 정당입니다. 세상에 8개 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서 시작한 국회 회의를 ‘단독’이니 ‘나 홀로’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에 산적한 많은 일들 함께 걱정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개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또 의료 분야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농촌에 보건복지의 따뜻한 온기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농해수위에서 주로 해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는 처음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중원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를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그런 현상,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 돌봄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오히려 전 정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제도나 사회복지 그리고 경제 예산을 줄이고 있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내팽개쳐진 채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면서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 성과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엊그제 11일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 반하는 그리고 국회법을 따라야 할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심

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망정 무능과 독선으로 오히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정부, 여당 모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마음이 무겁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나라, 돌봄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법과 제도를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보호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회의 벽을 서민 노동자들께 좀 더 낮추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의 문, 벽을 낮추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서구갑 출신 장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보건복지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 연금개혁 그리고 당면한 의료 공백 사태 해결 등이 모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데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할 여당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야당 위원들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는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야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구의원하고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민생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이것을 현안으로 풀어 가고자 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환자 여러분들께서 100일이 넘게 지속된 의료 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여당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서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늘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민생의 목소리를

귀 크게 열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의정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돌봄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건복지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위 소속 위원님들과 힘 합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인사말씀은 그냥 이 순서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해 왔고 특히 지난 10년은 지역에 있는 소아응급전문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이 날을 세우고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위험에 빠진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가 진영을 넘어 민생을 향해 갈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의료계의 상황은 들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불을 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올바른 방법으로 불을 끄거나 혹은 다 타 버리거나입니다. 그리고 이 들불의 가장 위험한 점은 내년에 심어야 할 알곡들부터 가장 빠르게 타들어 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안일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이 현장을 묶어세우고 있다면 의회가 고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 있는 개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의사, 나아가 한 사람의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료를 위해서 바람직한 협치의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 방에 제가 피감기관장으로서 5년 동안 참석을 하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되니 매우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방에서의 활동으로 사회권 선진국으로 예인하는 저희 조국혁신당의 업무를,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의료대란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조속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유감인 것은 저희가 상임위에 배정이 되자마자 복지부와 관련 부처에게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무슨 이유인지 약속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당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크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우리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경윤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현승철 행정실장입니다.

입법조사관과 주무관 직원분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아마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박주민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 강선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선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강선우) 인사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선우 위원님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선우입니다.

국민들께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최소한의 희망과 기대를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감사합니다.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

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6월 19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김선민 위원님 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상적 업무보고도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 등 출석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질문에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예. 의사진행발언이나 뭐 특별히 하실 게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남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원 구성 협상이 안 돼서 복지위원회에 오늘 국힘에서 안 들어온 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입법기관인 각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또 의정 갈등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쟁겨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아마 그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힘에서 무슨 지침을 내렸는지 각 의원님들이 어떤 요청하는 보고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안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무시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당면한 현안들이 얼마나, 너무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개혁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하자고 정부 여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보고조차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부 여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 여당에, 물론 간사도 없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런 자료를 보고하고 업무보고를 중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강하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이름으로 요청을 해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먼저 이수진 위원님 말씀 듣고 김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도 오늘 정부 여당이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인데 불참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인사말씀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의료대란으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과다한 노동이라든지 제한된 휴식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입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로서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국민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으로 저는 조속히 돌아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즉각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현장에 남아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분들 또 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병원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회적 숙의를 거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텐데 이렇게 독선에 빠진 정치를, 정책을 이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료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에는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보고도 거부하고 있고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어떠한 답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의대 정원 등 이런 의료대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1차관, 2차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대해서 조속하게 답변을 하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의결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제129조에 따라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19일 날 전체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회의에 과연 또 출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출석을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끌게 된다라면 이것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윤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공백이 100일을 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8일에는 의사협회가 휴진을 결의했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들 역시 무기한 휴진 또는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

에는 지연되지 않던 암환자의 진료가 3개월가량 늦어지다가 최근에는 6개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증환자가 수술 이후에 중환자 관리가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술 대신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면서 국민들은 현재 최선의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 의료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00명을 고집했고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들의 휴진 또는 진료 거부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료 공백의 큰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 여당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국회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순간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 여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현재 의정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혹시 더 발언하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무겁게 현실을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의료계의 문제는 이겁니다. 의료 공백이라기보다 7%가 안 되는 막내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포기함으로써 촉발된 공백이고 그 이외의 의사들은 지금까지 공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일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자리를 비운 것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인턴들이 모두 나갔다고 해서 국회가 100일이 안 되어 멈춰 선다면 그것은 국회의 잘못이지 인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론과 상식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10년 뒤,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예상하기 때문이고 의료 정책을 얘기할 때도 10년 뒤, 50년 뒤의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상식과 여론을 앞서 나가는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지금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료를 위해 애써 주시고 있는 의료진들께 대표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도 지금 일어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저희는 국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 잘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는 바이고 좋은 의견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으로 의료계와 정치계 그리고 국회가 함께 협조하는 모습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회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례가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회법의 경우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한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국민의힘을 넘어서 정부에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속하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아까 의결한 대로 6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선우 김남희 김선민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청가 위원(1인)

박희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조문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이상 15건 6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1. 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2024. 5.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4.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3)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7)

이상 6건 6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6월 11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6월 11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청원 회부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6. 8. 정미경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3)

6월 11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이상 2건 2024.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11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2	-	-	9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	-	1
질병관리청	-	-	-	2	1	-